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 효진·류근영*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부교수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의류학 전공*

의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 행동, 양식, 감각 등과 더불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문화로 그 세대를 대변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의 의류산업은 우리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의복의 매력과 중요성은 더 명백해졌다. 그러나 의복과 함께 패션이라 칭하여지는 모든 것은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사회의 통념이었다. 현대 패션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유행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남성복에 있어서도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재영역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고도의 과학기술로 인한 메스커뮤니케이션의 거대화 와 정보화사회의 변화로 남성복에 있어서 스타일의 다양화와 유행의 단 사이클화 개성화, 패션화, 고감도화 되어감에 따라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성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었다.

세계 2차대전 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성복은 경제적인 호경기에 발맞추어 기성복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하위문화의 주축을 이루었던 영국과 미국의 남성복에서도 거의 눈에 띄지않았던 남성복의 소재와 색상 그리고 패턴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1966년 이후에는 외생활이 더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여러 가지 특이한 합성섬유, 유리, 금속, 인조가죽 그리고 몸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반투명직(see-through fabric)이 나오는 등 의복재료는 나날이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또한 Colin McDowell은 1960년대를 패션의 주인공들에게 현대라고 불릴 수 있었던 초창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남성복의 패션 흐름을 고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남성복소재의 조형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남성복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내용은 20세기 후반의 하위문화 스타일을 중심으로 현대 남성복패션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흐름에 따라 사용된 소재의 내적 조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1960년대 이후 발간된 국내외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간행물들을 참고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 국내외 패션 관련 간행물 및 잡지 그리고 신문자료와 internet site을 통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